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

정소라 · 장석진**

상명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문제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 사이에 자기불일치가 매개변수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 소재 고등학교 재학 중인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SPSS 20.0와 AMO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모형을 설정하고 적합도와 각 변수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청소년의 완벽주의가 높아질수록 대인관계문제도 높아지고, 청소년의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기불일치도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으며,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가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자기불일치를 매개로 대인관계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을 상담할 경우,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불일치 정도를 탐색한다면 대인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고 돕는데 있어 효과적인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와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인관계문제 해결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주제어: 완벽주의, 대인관계문제, 자기불일치

논문투고일(2017. 02. 20), 논문심사일(2017. 07. 01), 게재확정일(2017. 08. 01)

* 본 원고는 정소라(2015)의 석사학위논문을 수정, 요약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장석진 / 상명대학교 교육학과 / 서울시 종로구 홍지문 2길 20 / Tel: 02-2287-5497 / E-mail: schang@smu.ac.kr

I. 서론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서 부모에게 의존했던 아동이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도기이다. 이 시기에는 신체적·정서적·도덕적·사회적 발달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특히, 부모·자녀, 형제·자매, 교우 등 타인과의 관계를 형성하면서 자아와 인격이 발달하게 된다(이선영, 1999; 이지윤, 김완일, 2017; 장휘숙, 2004; 정옥분, 2011; 지용근, 1996; 여성가족부, 2012;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Sullivan(1953)은 청소년기에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대인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면, 성인기에 접어들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회피하거나 억압하고 불안과 공포를 경험하게 되어 대인관계에서 심리·사회 부적응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였다(조연주, 2011; 황광숙, 2006). 특히, 최근 들어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살고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입시경쟁과 개인주의 문화 등으로 복잡하고 제한된 대인관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대인관계 경험은 ‘따돌림’, ‘괴악밀착’, ‘미성숙한 이성교제’, ‘부모와의 갈등’, ‘반항’, ‘의존’ 등 부정적인 대인관계문제로 이어지게 되며,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 부적응 및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김정균, 장석진, 2014; 홍진이, 한기백, 2015; McEvoy, Burgess & Nathan, 2013). 실제로 전국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의 고민을 분석한 결과,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여성가족부, 2012. 2. 29. 보도자료). 이에 학교현장 및 청소년상담기관을 중심으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으며,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관련한 상담은 2011년 12.2%에서 2014년 20.3%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서울시, 2014. 5. 26. 보도자료). 최근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이루어진 상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인관계문제로 인한 상담(22.4%, 888,650건)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대인관계와 관련된 고통을 경험하는 정도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5).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자들은 대인관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심리적 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심리적 장애에 대한 이해와 치료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권석만, 김지영, 2002).

한편, 여러 경험적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 내적인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이중 내적인 요인으로 완벽주의, 자기불일치, 비합리적 신념, 인지적 왜곡, 부정적 인지와 관련이 있음이 밝혀져왔다(김남재, 2001; 김영수, 2010; 김윤희, 서수균, 2008; 류진혜, 2002; 서수균, 2011; 장윤아, 2014; 정옥경, 2001).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부모-자녀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복합외상 등 다양한 변인들이 연구되어 왔다(김주원, 2009; 박윤선, 채규만, 2010; 이현정, 장희순, 2014, 한기백, 2014).

그 중에서도 많은 선행연구자가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 주목해왔다(김신나, 성영혜, 2005; 김여량, 2013; 박현주, 정대용, 2010; 이원경, 2011; 정옥경, 2001; 한경희, 2012; Hewitt & Flett, 1991; Hill, Zrull & Turlington, 1997). Burns와 Beck(1978)은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생각과, 비난에 대한 높은 민감성이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는 주요 변인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에게 주목해왔다. Blatt(1995)도 타인에게 부정적 행동을 유도하고 자극하여 전체 관계에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접촉을 손상시키고 회피하는 완벽주의 성향의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왔다(Flett & Hewitt, 2002). 이들이 밝히고 있는 완벽주의의 특성 중 하나는, 자신의 완벽하지 못한 모습과 실수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거부당할 것을 예상하여, 타인의 사소한 평가와 비판에도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고 부적응적인 심리상태가 유발되며, 타인이 기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동기가 강화된다(김민선, 서영석, 2009; 한경희, 2012; Burns & Beck., 1978; Burns, 1980; Dakanalis, Clerici, & Carra, 2016; Flett, Hewitt, Blankstein, & Mosher, 1995). 완벽주의에 대한 선두적인 연구를 수행해온 Hewitt와 Flett(1991b)은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완벽주의적 행동의 대상이 누가 되는가에 따라 세 가지 차원으로 완벽주의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self-oriented perfectionism)로 스스로에게 높은 기준을 부과하고 자신의 수행을 평가하는데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특징을 갖는다. 둘째, 타인지향적 완벽주의(other-oriented perfectionism)로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에게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타인의 수행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감독하며 비난한다. 셋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socially prescribed perfectionism)는 중요한 타인들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이고

과도한 기준을 부과한다고 믿으며 그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거부당할 것이라는 지각을 반영하는 특징을 지닌다. 구체적으로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대인관계에 있어 회피, 위축, 의존적인 성향을 나타내는데, 이는 수행 및 성취결과와 관련해 타인에게 비취질 자신의 모습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취하기 때문이다. 반면,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권위적이고, 착취적, 지배적, 주장성이 강한 성향을 띄며, 타인을 비난함으로써 겪게 되는 대인관계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lett, Hewitt & Rosa, 1996; Hewitt & Flett, 1991b). 특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타인의 비난, 명청하게 보이는 것,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 타인을 신뢰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등 다른 차원의 완벽주의보다 대인관계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Flett, Hewitt, & Rosa, 1996; Hewitt et al., 2003). 물론, 완벽주의와 관련하여 적응적, 부적응적 측면에서의 연구가 공존하고 있기는 하나(박지연, 이인혜, 2014), 이상과 같은 선행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문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정서적 발달이 급격히 이루어지는 청소년기에 주목하여 완벽주의적 성향이 이들의 대인관계문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완벽주의자는 타인에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잘 해내야 한다는 비합리적 신념에 따라 잘못된 자기개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심리적 고통은 그것에 기인된다고 주장하며(김지윤, 2013; Hollander, 1965), 완벽주의와 자기개념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Rogers(1961)는 자기개념을 자신에 대한 지각 및 평가로, 타인의 객관적인 판단과 평가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고, 실제 자기(real-self)와 이상적으로 희망하는 자기(ideal-self)간의 불일치가 부정적 정서장애와 관련된다고 언급하였다. Markus(1977, 1990) 역시 실제적 자기,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를 포함하는 자기표상을 자존감, 정서, 대인관계 등 개인의 행동을 결정하는 주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보았다(권석만, 김지영, 2002). 이처럼 선행연구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자기개념 및 자기표상 등이 대인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연구자마다 개념이 다르게 정의되고 있어 이에 대한 통합된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서수균, 1996; Higgins, Bond, Klein & Strauman, 1986). Higgins(1987)는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자기개념 갈등과 관련된 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자기불일치이론

(self-discrepancy theory)을 제시하였는데, 자기불일치이론은 ‘실제자기’의 모습과 자신이나 중요한 타인이 바라는 ‘이상적 자기’, 꼭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의무적 자기’의 불일치 유형에 따라 어떤 부정적 정서를 촉발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한 이론이다(Higgins, 1987, 1989). Hankin(1997)과 동료들은 자기불일치와 완벽주의에 대한 관련성을 연구한 결과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기불일치와 정적으로 관련되었다고 보고하였다(Flett & Hewitt, 2002). 자기지향적 완벽주의의 경우,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의 불일치를 통해 우울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Higgins, Bond, Klein, & Strauman, 1986). 특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성향이 클수록 실제 자기 모습이 타인이 설정한 완벽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고하는 경향이 컸는데, 다시 말해 타인의 기준과 자기의 기준 사이에 불일치가 크다는 것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 자기 스스로 설정한 기준에 근거하기보다는 타인이 부과한 기준에 더 높은 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하정희, 2013). 또한, 선행연구자들은 부적응적 완벽주의 특징이 나타날수록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에 미치지 못해 불일치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김대현, 2016). 그러나 이처럼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완벽주의가 자기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완벽주의는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자기불일치 또한 대인관계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완벽주의는 자신과 타인에게 비현실적인 기대를 부과하고, 동시에 자기 실수에 매우 비판적이게 하여, 타인의 반응에 민감해지는 시기임을 감안했을 때 대인관계에 있어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완벽주의 청소년들은 완벽해지고 싶은 동기가 있으나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 간의 차이를 느끼게 되어, 내적인 불편감 뿐만 아니라 좌절, 실망, 분노 등 부정적인 정서 경로를 통해 결과적으로 무기력함, 수동성, 공격성, 회피성, 예민성 등의 대인관계문제를 발생시키거나 강화할 수 있음을 가정할 수 있다(김영수, 2010; 이원희, 안창일 2005). 그러나, 지금까지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자기불일치를 각각 대인관계문제의 요소와 연결 지은 연구는 있었으나, 완벽주의, 대인관계문제, 자기불일치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확인된 바가 없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결과 및 이론적 접근을 토대로 설정한

청소년기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매개모형을 확인하고, 그 적합도와 개별 요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만약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에 자기불일치가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된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청소년들의 대인관계문제에 집중하기보다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심리 내적 변수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개입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자기불일치, 대인관계문제 간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에서는 서울 지역 3개의 인문계 고등학교 1·2·3학년에 재학생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전에 연구자가 각 학교 교사에게 연구 목적 및 설문지 작성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이후 각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지도 아래 설문이 진행되었으며 소요시간은 약 13분-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총 400명의 학생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43부를 제외한 357부(89.2%)를 분석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일반적 특성 (N = 357)

변수		빈도(명)	백분율(%)
성별	남학생	256	71.7
	여학생	101	28.3
학년	1학년	50	14
	2학년	243	68.1
	3학년	64	17.9

2. 측정도구

1) 다차원적완벽주의

다차원적 완벽주의 척도(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는 Hewitt와 Flett(1991a)이 제작해 최원혜(1999)가 고등학생 실정에 맞게 번안한 척도로, 본 연구에서는 원척도에서 45문항 중 요인 부하량이 낮은 문항은 제외하고 30문항만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3가지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방식은 7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완벽주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완벽주의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87,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89,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74,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61로 나타났다.

2) 대인관계문제

홍상황,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래, 진유경(2002)은 Alden, Wiggins와 Pincus(1990)가 64문항 단축형으로 재구성한 대인관계문제검사 원형척도(IIP-Circumplex Scale, IIP-C)를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한국 실정에 맞게 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홍상황 등(2002)이 개발한 척도를 신뢰도와 타당도 확인을 거쳐 사용하였다. 척도는 8가지 하위차원 구성으로 ‘통제지배’,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별로 각 5문제이며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응답방식은 5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에 어려움이 큰 것을 의미한다. 홍상황 등(2002)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61~.89의 범위였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합치도는 .94였다.

3) 자기불일치척도

Higgins의 자기질문지를 서수균(1996)이 단점을 보완하여 새롭게 구성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서수균(1996)이 제작한 자기질문지 측정도구를 바탕으로 박

현주(2003)가 제작한 ‘실제 자기’,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로 구성된 척도를 사용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청소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문항의 형용사들을 양 축으로 나누어 3점, 2점, 1점, 0점, 1점, 2점, 3점으로 배치하였다. 즉, 자기 모습에 가까운 형용사 쪽에 높은 점수에 표시하고, 어느 쪽도 아닐 경우 중앙에 있는 0점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내적 합치도는 .96이었으며, 실제자기는 .89, 이상적자기 .95, 의무적 자기는 .95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 SPSS 20.0을 사용하여 완벽주의, 대인관계문제, 자기불일치의 주요 변인에 대한 전반적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정상분포가 가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척도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를 산출했으며 완벽주의, 대인관계문제, 자기불일치의 연구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모형 분석을 실시하기 전,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가 매개하는 연구 모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통계프로그램 AMOS 20.0을 사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ethod)을 적용한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 잠재 변수를 총 3개 꾸러미로 하여 대인관계문제 1변, 대인관계문제 2변, 대인관계문제 3변으로 구성했다. 구조 모형에서는 자료가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을 가정하는데, 모든 문항을 측정변인으로 할 경우 다변량 정규분포 가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문항수가 많아질수록 추정할 모수가 많아져 결국 연구 모형을 추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Bandalos, 2002; 서영석, 2010 재인용).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항꾸러미를 제작하고 자료를 분석하여 비정규성 수준을 감소시켜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식을 사용하여 절차에 따라 간접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기술 통계치 및 측정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측정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정규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였고 그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왜도와 첨도 값이 모두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관계 분석 결과, 완벽주의 하위 척도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대인관계문제 꾸러미 3변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r = .12, p < .05$). 그러나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이상적 자기불일치, 의무적 자기불일치, 대인관계문제 꾸러미 1변, 대인관계문제 꾸러미 2변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대인관계문제 꾸러미 1변($r = .38, p < .01$), 2변($r = .24, p < .01$), 3변($r = .40, p < .01$)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이상적 자기불일치와, 의무적 자기불일치와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이상적 자기불일치와 상관을 분석한 결과 정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고($r = .15, p < .01$), 대인관계문제 꾸러미 1변($r = .36, p < .01$), 2변($r = .28, p < .01$), 3변($r = .41, p < .01$)과의 관계에서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상적 자기불일치와 대인관계문제 꾸러미 1변($r = .28, p < .01$), 2변($r = .31, p < .01$), 3변($r = .29, p < .01$)간에도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무적 자기불일치와 대인관계문제 꾸러미 1변($r = .19, p < .01$), 2변($r = .21, p < .01$), 3변($r = .20, p < .01$) 모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측정변인들 간의 상관 및 기술통계

	1	2	3	4	5	6	7	8
1								
2	.22**							
3	.47**	.45**						
4	-.01	.04	.15**					
5	.02	.07	.09	.64**				
6	.07	.38**	.36**	.28**	.19**			
7	-.03	.24**	.28**	.31**	.21**	.82**		
8	.12*	.40**	.41**	.29**	.20**	.89**	.81**	
M	4.43	3.14	3.91	1.53	1.35	2.44	2.51	2.46
SD	1.05	.90	.74	.79	.72	.62	.69	.60
왜도	.02	-.12	-.09	.76	.93	.22	.44	.03
첨도	.36	-.27	1.06	1.77	1.53	.27	.88	.04

주) 1.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2. 타인지향적완벽주의 3. 사회부과적완벽주의 4. 이상적 자기불일치 5. 의무적 자기불일치 6. 대인관계문제1 7. 대인관계문제2 8. 대인관계문제3

* $p < .05$, ** $p < .01$

2. 매개모형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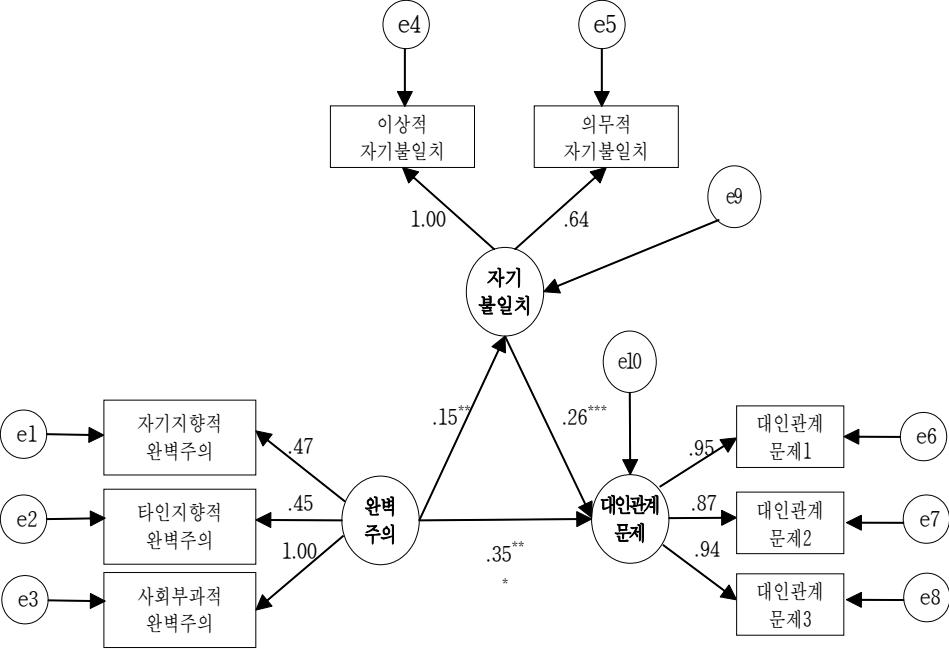
구조모형과 매개효과 검증에 앞서 모형의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 측정모형 검증을 실시했다.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기 위해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 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r Approximation)을 확인했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지표 modification indices를 보고 오차간의 공변량이 높게 나타난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대인관계의 오차간의 상관을 표시해주었다. Hewitt와 Flett(1991), Hewitt, Flett, Blankstein과 Dynin(1994), Hill, McIntire와 Bacharach(1997)는 선행연구에서 타인지향적 완벽주의는 대인관계 문제 하위척도인 냉담-지배적인 분위기의 행동과 일관되게 관련이 있으며, 권위적, 착취적 성향이 있고 타인을 비난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심과 조급함을 보일 수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높아 대인관계문제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특질은 대인관계문제와 관계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에서도 이 두변인의 오차간 상관을 가정했다. 본 연구에서 측정모형검증을 실시한 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는 CFI = .96, TLI = .93, RMSEA = .079를

나타내어 Kline(2005)이 제시한 기준($CFI > .90$, $TLI > .90$, $RMSEA < .10$)에 따라 측정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조모형 검증에서도 측정모형과 같이 수정지표(modification indices)를 보고 오차간의 공변량이 높게 나타난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의 오차간 상관을 표시해주었다. 결과적으로,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검정 결과, χ^2 값의 차이가 $\Delta\chi^2(1) = 47.86$ 으로 .05 수준에서 유의미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형의 적합도를 살펴본 결과 완전매개 모형에서 전체적인 모형의 적합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는 부분매개 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채택하였다.

1) 청소년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 검증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에서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부분 매개모형(연구모형)을 검증하고,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경로를 제외한 완전매개모형(경쟁모형)을 분석하여, 두 모형의 χ^2 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였다. 우선,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χ^2 차이검정 결과 유의 수준 .001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합도 지수 $CFI = .97$, $TLI = .96$ 으로 전반적으로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였으며, $RMSEA$ 도 .079로 수용 가능한 적합도로 분석되었다. 연구모형과 적합도 결과를 그림 1과 표 3에 제시하였다. 한편, 최종모형에서 경로계수와 요인 부하량을 검증한 결과, 부분 매개 모형의 모든 경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자기불일치가 높아지고($\beta = .15$, $p < .01$), 자기불일치가 높아질수록 대인관계문제도 높아졌다($\beta = .26$, $p < .001$). 또한, 완벽주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문제도 높아지는($\beta = .35$, $p < .001$) 것을 볼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완벽주의는 자기불일치를 높이는 동시에 대인관계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로계수 검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주. e2와 e10의 오차간 상관을 가정 함. ** $p < .01$, *** $p < .001$

〈표 3〉 연구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CFI	TLI	NFI	RMSEA (90%신뢰구간)
부분매개모형	58.19	18	.97	.96	.96	.079(.05-.102)
완전매개모형	106.05	19	.94	.91	.93	.113(.093-.135)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구조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S.E	C.R
완벽주의 → 자기불일치	.17	.15**	.06	2.90
자기불일치 → 대인관계문제	.20	.26***	.04	5.53
완벽주의 → 대인관계문제	.28	.35***	.04	7.14

** $p < .01$, *** $p < .001$

2)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의 관계에서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Shrout와 Bolger(2002)가 제안한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트스트랩 검증에 사용된 원자료(N = 357)에서 무선 표집으로 생성된 10000개의 경험적 표본이 모수추정에 사용되었으며,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간접효과가 .04($p < .01$)이었으며, 완벽주의가 자기불일치를 통해 대인관계문제로 가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이 상한과 하한 범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이 검증되었다. 즉,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에서 자기불일치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간접효과 분석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 연구모형의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구조경로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95%신뢰구간	
				Bootstrap	Percentile
				하한	상한
완벽주의→자기불일치	.15**	.15**	-		
자기불일치→대인관계문제	.26***	.26***	-		
완벽주의(자기불일치) →대인관계문제	.39***	.35***	.04**	.01	.08

** $p < .01$, *** $p < .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호소하는 대인관계문제의 내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돕기 위하여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완벽주의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불일치를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문제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완벽주의 하위요인인 자기지향적 완벽주의, 타인지향적 완벽주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대인관계문제와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김여량, 2013; 박현주, 정대용, 2010; 안명성, 2002; 이원경, 2011; 정옥경, 2001; 한경희, 2012; Hewitt & Flett, 1991b; Hill, Zrull & Turlington, 1997)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Burns와 Beck(1978)이 언급한 것과 같이 완벽주의자들은 타인에게 거부당할 것이라는 생각과, 비난에 대한 민감성 때문에 사회적 접촉을 회피하거나 손상시켜 대인관계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Hewitt et al., 2003). 특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는 자신에게 과도한 기대를 부과한다고 느끼는 타인과 사회에 적대적일 수 있으며, 대인 관계에서 자신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되어 왔다(Hewitt et al., 2003; Flett, Hewitt, & Rosa, 1996).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문제를 유발하여, 심리 및 사회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견해를 지지한다(강민진, 2017; 정남운, 2004; 김정규, 2009; 하정희, 송수민, 정은선, 2010; Alden, Wiggins & Pincus, 1990; Horowitz, 1996).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완벽주의가 낮아지면, 대인관계문제도 감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완벽주의 하위변인인 사회부과적 완벽주의는 자기불일치 표상 중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불일치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자는 실제 자기의 모습과 타인에게 인정받고 수용되기 위해 세운 이상적 자기 모습 간의 불일치를 경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Wurmser(1981)의 연구에 따르면 부적응적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불일치가 높아진다고 하였다(Wurmser, 1981; 남기숙, 2008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기불일치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김대현, 2016; 하정희, 2013; Hankin, Roberts, & Gotlib, 1997)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Hewitt와 Genest(1990)가 언급한 것과 같이 완벽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자신의 실제 능력보다 높은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과 실제 수행에서 오는 차이로 인해 좌절, 실망, 분노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될 확률이 높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영수, 2010, 이원희, 안창일, 2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기지향적 완벽주의는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불일치와는 부적 상관을, 실제 자기와 의무적 자기간의 불일치와는 정적상관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완벽주의와 자기불일치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한 Hankin, Roberts & Gotlib(1997)의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완벽주의에 관한 연구 동향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자들에 의하면, 완

벽주의에 적응적, 부적응 측면이 공존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는데, Frost, Heimberg, Holt, Mattia와 Neubauer(1993)는 Hewitt와 Flett(1991)가 제안한 완벽주의 하위변인 중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한 반면, 자가지향적 완벽주의와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역기능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가능성이 높은 자기불일치의 경우에는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자가지향적 완벽주의 및 타인지향적 완벽주의와는 상관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모든 완벽주의가 높은 자기불일치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특히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자기불일치를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완벽주의를 모두 부적응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측면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자기불일치의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간의 불일치, 실제 자기와 의무적 자기 간의 자기불일치 모두 대인관계문제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기불일치가 개인의 심리적 불편감과 부정적 정서경로를 통해 대인관계 예민성, 불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김영수, 2010; 박현주, 조궁호, 2003;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 1995; 조용래, 김선태, 표경식, 1996; Higgins, Klein & Strauman, 1985) 결과를 지지한다. 이는 또한, Fenigstein(1979)이 언급한 것과 같이 자기인식이 부적절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에 대해 지나치게 과민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부적절한 대인관계 및 대인불안 등과 같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은혁기, 2001).

둘째,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완벽주의가 자기불일치를 매개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하에 매개모형검증을 실시한 결과, 부분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완벽주의가 직접적으로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며, 자기불일치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완벽주의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강민진, 2017; 정남운, 2004; 김정규, 2009; 하정희, 송수민, 정은선, 2010; Alden, Wiggins & Pincus, 1990; Horowitz, 1996), 자기불일치가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준다고 밝힌 선행연구들(김영수, 2010; 박현주, 조궁호, 2003;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 1995; 조용래, 김선태, 표경식, 1996; Higgins, Klein & Strauman, 1985)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완벽주의 성

향의 청소년들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완벽해 보이고 싶은 동기가 있으나, 실제 자기와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 간의 차이로 인해 좌절감, 분노, 실망감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되어, 그 결과 대인관계에 있어 무기력함, 수동, 공격성, 회피적, 비주장성 등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강화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김영수, 2010; 이원희, 안창일, 2005). 이러한 결과는 완벽주의가 자기불일치를 매개로 대인관계의 한 측면인 편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하정희, 2013)와, 자기불일치를 통해 사회공포증 환자와 우울 환자를 구분한 연구(Strauman, 1989, 1992), 대인불안과 우울에서의 자기불일치의 영향을 밝힌 연구결과(김남재, 2001)와도 맥락을 같이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볼 때,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문제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요인인 자기불일치와, 완벽주의에 대한 이해가 모두 필요하다. 그러나, 완벽주의 특질의 경우 비교적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성격구조로 여겨지는 반면, 자기불일치는 수행에 대한 피드백과 경험을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변화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lett & Hewitt, 2002).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대인관계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부적응적 완벽주의를 적응적 완벽주의로 변화시키는 접근도 필요하지만, 이와 동시에 상대적으로 변화 가능성이 높은 자기불일치에 집중하고 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효율적인 개입이라고 판단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자기불일치가 심리적 부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들은 있었지만, 자기불일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설정하고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다룬 연구는 미흡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이 그들의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자기불일치가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는 청소년들의 완벽주의 성향 및 자기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입과 접근이 대인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시사하는 결과로, 상담 장면에서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대인관계문제를 호소할 경우, 자기불일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치료적 관점을 상담자에게 제공할 것이다. 즉, 자기불일치에 초점을 둔 상담적 개입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유용성을 제기하는 연구결과로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일부 인문계 고등학생이므로

연구 결과를 모든 청소년에게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계열의 고등학생을 표집하여 연구 대상의 대표성과 일반화 범위를 넓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자료들은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사용하여 수집되었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응답이나 방어적인 태도가 반영된 답변일 경우 한계를 갖는다. 이후 연구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면접, 행동관찰, 부모 및 교사의 평정과 같은 다양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기불일치 척도는 선행연구(강혜자, 1998; 박현주, 조궁호, 2003; 이은영, 한기연, 1991)에서도 밝혔듯이 청소년들의 이상적 자기와, 의무적 자기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두 변인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기불일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차원을 포함한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여 매개 및 조절 변인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이 자기불일치와 대인관계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기제를 확인하였으며, 자기불일치가 청소년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인관계문제 간의 관계를 매개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청소년들의 대인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와 청소년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대인관계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민진 (2017). **사회부과 완벽주의가 대인관계적절성에 미치는 영향: 대인존재감과 독립적 자기해석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혜자 (1998). **自己差異, 差異減少期待 및 歸因이 情緒에 미치는 影響**.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석만, 김지영 (2002). 자기 및 타인 표상과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705-726.
- 김남재 (2001). 대인불안과 우울에서의 자기불일치. **심리과학**, 10(1), 55-67.
- 김대현 (2016). **부적응적 완벽주의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성취-관련 자기 불일치와 속박감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선, 서영석 (2009). 평가염려 완벽주의와 사회불안의 관계: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25-545.
- 김신나, 성영혜 (2006). 아동의 완벽주의에 따른 대인관계성향. **숙명여자대학교 아동학회**, 19(1), 29-58.
- 김여량 (2013).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대인관계 문제의 관계에서 완벽주의의 매개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수 (2010). **자기불일치가 대인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 불안의 매개효과 검증**.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 서수균 (2008). 완벽주의에 대한 고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3), 581-613.
- 김정규 (2009). 미국 청소년들의 또래관계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3(1·2), 225-253.
- 김정균, 장석진 (2014). 중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관계적 공격성의 관계에서 비합리적 신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5(2) 791-810.
- 김주원 (200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완벽주의 및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윤 (2013). **대학생의 사회부과 완벽주의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자기개념 명확성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기숙 (2008). **수치심, 죄책감 경험과 대처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류진혜 (2002). 대학생의 대인관계와 지도방안. **강남대학교 학생생활상담소**, 9, 83-95.

박경애, 이재규, 권해수 (1998). 대인관계향상프로그램개발연구. **문화관광부 청소년상담전문기관 청소년대화의 광장, 청소년상담연구(63)**, 4-16.

박윤선, 채규만 (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대인불안과의 관계에서 수치심 경향성의 매개효과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8(2), 133-147.

박지연, 이인혜 (2014). 완벽주의, 반추, 우울의 관계: 적응적 완벽주의와 부적응적 완벽주의.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9(1), 371-386.

박현주, 정대용 (2010). 완벽주의 하위집단의 특징: 지연행동, 문제해결평가, 대인관계 문제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1(3), 975-991.

박현주, 조국호 (2003). 고등학생의 자기불일치와 우울, 불안 및 자기 효능감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인간이해**, 24, 127-148.

서수균 (1996). 자기집중적 주의, 실제 자기개념 및 자기안내자 선호성을 고려한 자기불일치와 우울 및 불안의 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수균 (2011). 비합리적 신념과 공격성 사이에서 부적응적 인지전략과 대인관계 양상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4), 901-919.

서영석 (2010). 상담심리 연구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 개념적 구분 및 자료 분석 시 고려사항.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2(4), 147-168.

서울시 보도자료 (2014. 5. 26). 서울시 청소년 고민, 남자는 ‘학업·진로’, 여자는 ‘대인관계’.

안명성 (2002). **완벽주의 성향과 자기존중감 및 대인관계문제**.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여성가족부 (2012). **2012 청소년백서**. p.199.

여성가족부 (2015). **2012 청소년백서**. p.179.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12. 2. 29.).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개소 1주년**. 여성가족부.

은혁기 (2001). 청소년들의 자기인식, 타인인식, 대인기술 및 대인관계만족에

-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9(1), 136-157.
- 이선영 (1999).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자기표출과의 관계. **효성여자대학교 생활연구**, 12, 105-117.
- 이원경 (2011). 대학생의 완벽주의와 대인관계만족의 관계: 내면화된 수치심과 대인관계문제의 매개효과. **대학생활연구**, 17(2), 74-90.
- 이원희, 안창일 (2005). 자기애와 다차원적 완벽주의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1), 19-36.
- 이은영, 한기연 (1991). 대학생들의 실제적 자기, 이상적 자기, 의무적 자기에 대한 내용 분석. **정신건강연구** 10, 195-209.
- 이지윤, 김완일 (2017).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3), 269-288.
- 이현정, 장희순 (2014). 청소년의 복합 및 다중외상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사이에서 초기부적응 도식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4(1), 39-59.
- 임일모, 조용래, 김학렬 (1995). 자기불일치와 심리적 불편감의 관계-자기 불일치 이론의 경험적 검증. **신경정신의학**, 34(5), 1416-1431.
- 장윤아 (2014). **청소년의 외로움과 대인관계문제의 관계: 부정적 인지의 매개효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4). **청년심리학**. 박영사.
- 정남운 (2004). 대인관계 원형모델에 따른 한국판 대인관계 형용사 척도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1), 37-51.
- 정옥경 (2001). **완벽주의 성향이 불안과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옥분 (2011). **청년발달의 이해**. 학지사.
- 조연주 (2011). **청소년의 자아분화와 대인관계문제의 연관성**.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래, 김선태, 표경식 (1996). 신경증적 증상 환자들의 자기-불일치와 정신병리의 관계: 자기-불일치 이론의 임상적 적용가능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35(3), 664-377.
- 지용근 (1996). **인간관계훈련이 대인관계성향에 미치는 효과**.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원혜 (1999). **중등학생의 시험스트레스 상황에서 완벽주의 특성에 따른 시험**

불안에 관한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정희 (2013). 완벽주의 성격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태도와 의 관계-자기불일치, 편견, 외적동기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4(6), 3557-3574.

하정희, 송수민, 정은선 (2010). 자기제시동기에 따른 수치심 경향성과 대인관계와의 관계. **상담학연구**, 11(3), 993-1006.

한경희 (2012).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가 내면화된 수치심과 정서표현 양가성을 통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청소년활동론.**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기백 (2014). 여자대학생이 지각한 아동기 부모의 돌봄과 과보호가 우울증상에 미치는 영향 : 자기존중감과 역기능적 신념의 매개 효과. **한국상담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2), 315-340.

홍상환, 박은영, 김영환, 권정혜, 조용례, 진유경 (2002). 한국형 대인관계 문제 검사 원형척도의 단축형(KIIP-SC) 구성.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923-940.

홍진이, 한기백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5), 367-389.

황광숙 (2006). **자아방어기제와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lden, L. E., Wiggins, J. S., & Pincus, A. L. (1990). Construction of circumplex scales for the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5(4), 521-536.

Bandalos, D. L. (2002). The effects of item parceling on goodness-of-fit and parameter estimate bia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9(1), 78-102.

Blatt, S. J. (1995). Representational structures in psychopathology.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6, 1-33.

Burns, D. D., & Beck, A. T. (1978). *Cognitive-behavior modification of mood disorders.* Cognitive Behavior Therapy, 109-134.

Burns, D. D. (1980). The perfectionist's script for self-defeat. *Psychology*

Today, November, 14, 34-52.

Dakanalis, A., Clerici, M., & Carra G. (2016). Narcissistic vulnerability and grandiosity as mediators between insecure attachment and future eating disordered behaviors: A prospective analysis of over 2,000 freshme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72(3), 279-292.

Fenigstein, A. (1979). Self-consciousness, self-attention, and social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1), 75-86.

Flett, G. L., & Hewitt, P. L. (2013). *완벽주의 이론, 연구 및 치료 {Perfectionism: Theory, Research, and Treatmaent}*. (박현주, 이동귀, 신 지은, 차영은, 서해나 역). 학지사. (원전은 2002에 출간).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Dynin, C. B. (1994). Dimensions of perfectionism and type a behaviou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6(3), 477-485.

Flett, G. L., Hewitt, P. L., Blankstein, K. R., & Mosher, S. W. (1995). Perfectionism, life events, and depressive symptoms: A test of a diathesis-stress model. *Current Psychology*, 14(2), 112-137.

Flett, G. L., Hewitt, P. L., & Rosa, T. D. (1996). Dimensions of perfectionism, psychosocial adjustment, and social skill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0(2), 143-150.

Frost, R. O., Heimberg, R. G., Holt, C. S., Mattia, J. I., & Neubauer, A. L. (1993). Acomparison of two measures of perfectionis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4(1), 119-126.

Hankin, B. L., Roberts, J., & Gotlib, I. H. (1997). Elevated self-standards and emotional distress during adolescence: Emotional specificity and gender differences.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6), 663-679.

Hewitt, P. L., & Genest, M. (1990). The ideal self: Schematic processing of perfectionistic content in dysphoric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4), 802-808.

Hewitt, P. L., & Flett, G. L. (1991a). Dimensions of perfectionism in unipolar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1), 98-101.

Hewitt, P. L., & Flett, G. L. (1991b). Perfectionism in the self and social

- contexts: Conceptualization, assessment,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3), 456-470.
- Hewitt, P. L., Flett, G. L., Sherry, S. B., Habke, M., Parkin, M., Lam, R. W., McMurtry, B., Ediger, E., Fairlie, P., & Stein, M. B. (2003). The interpersonal expression of perfection: Perfectionistic self-presentation and psychological distr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6), 1303-1325.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3), 319-340.
- Higgins, E. T. (1989). Self-discrepancy theory: What patterns of self-beliefs cause people to suffer?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93-136. New York: Academic Press.
- Higgins, E. T., Klein, R., & Strauman, T. (1985). Self-concept discrepancy theory: A psychological model for distinguishing among different aspects of depression and anxiety. *Social Cognition*, 3(1), 51-76.
- Higgins, E. T., Bond, R. N., Klein, R., & Strauman, T. (1986). Self-discrepancies and emotional vulnerability: how magnitude, accessibility, and type of discrepancy influenc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1), 5-15.
- Hill, R. W., McIntire, K., & Bacharach, V. R. (1997). Perfection and the big five factors. *Journal of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12(1), 257-270.
- Hill, R. W., Zrull, M. C., & Turlington, S. (1997).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9(1), 81-103.
- Hollender, M. H. (1965). Perfectionism. *Comprehensive Psychiatry*, 6, 94-103.
- Horowitz, L. M. (1996). The Study of Interpersonal Problems: A Leary Legac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6(2), 283-300.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nd ed.). New York: Guilford Press.
- Markus, H. (1977). Self-schemata and processing information about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5(2), 63-78

- Markus, H. (1990). Unresolved issues of self-representat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4(2), 241-253.
- McEvoy, P. M., Burgess, M. M., & Nathan, P.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problems, negative cognitions, and outcomes from cognitive behavioral group therapy for depre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50(2), 266-275.
- Rogers, C. R. (1961).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 Muffin.
- Shrout, P. E., & Bolger, N.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445.
- Strauman, T. J. (1989). Self-discrepancies in clinical depression and social phobia: Cognitive structures that underlie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1), 14-22.
- Strauman, T. J. (1992). Self-guides, autobiographical memory, and anxiety and dysphoria: Toward a cognitive model of vulnerability to emotional distres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1), 87-95.
- Sullivan, H. 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W. W. Horton.
- Wurmser, L. (1981). *The Mask of Shame*.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Abstrac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screpan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Adolescents

Jung, So-Ra · Chang, Seok-Jin
Sangmy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discrepancy between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adolescents. For this purpose, Multidimensional Perfectionism scale(H-MPS), Inventory of Interpersonal Problems scale(KIIP-SC) and Self-discrepancy scale were collected from 357 high school studen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ere employed to examine the hypothe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correlations among self-discrepancy,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were significant. Also, the relationship between perfectionism and interpersonal problems of adolescents was partially mediated by self-discrepancy. In other words, it can be concluded that when we try to help the adolescents who are suffering from interpersonal problems, it could be an effective intervention to search their perfectionism tendency and self-discrepancy level. The implications for counseling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 Key words: self-discrepancy, perfectionism, interpersonal problems